

해양문화연구 제4호 1998년 12월

## 남해의 민속과 항구문화

강 남 주\*

### 〈目 次〉

1. 사람이 사는 곳에 문화 있다.
2. 바다의 문화적 의미
3. 바다와 관련된 남해의 민속
4. 대결에서 화해 지향

### 1. 사람 사는 곳에 문화 있다.

항구에는 항구의 문화가 있다. 문화란 사람이 자연을 이용하여 이상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정신활동으로 규정지을 때 항구는 바로 그런 정신활동의 현장이다. 그같은 현장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꾸려낸 삶의 모습이 흔적으로 남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항구에는 항구적인 특유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다룰 주제는 항구문화에 관해서다. 이 주제는 「항구문화」라는 술어를 문화의 광범위한 범주 개념 속에 특징 있는 어떤 문화적 유형으로 정립해야겠다는 의욕에서 나온

\* 부경대학교 교수

것이다. 이는 새로운 시도다. 그리고 바다와 우리의 환경 속에는 언젠가 또 누군가가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부산으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항구를 문화적 유형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일이 항구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다. 그렇다면 항구란 무엇을 두고 일컫는 말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 기능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지리적 또는 문화적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따라 방법론상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개념에 편차를 낳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항구는 역시 육지와 바다가 접한 지역이나 해역을 사람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곳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개발의 차원에서 볼 때 이 곳은 도시성(都市性)에 중점을 두고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같은 차원에서 항구는 수면성(水面性)에 중점을 두고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점은 서구의 경우 그 개념을 변별성있게 구분하고 있다. 도시성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 그들은 바다에 대하여 Port라는 단어를 쓴다. 수면성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는 Harbour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이 이를 잘 말해 준다.

항구는 이밖에도 기능면에서 상항, 군항, 어항, 공업항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형성의 조건에서 해항, 연안항, 하항(河港), 호항(湖港)으로 나누기도 한다. 개항장이나 중계항, 자유항 등도 역할면에서 나눈 항구의 유형에 해당된다.

어떻든 항구는 배가 정박하는 바다와 육지를 일컫고 있다. 이 곳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용되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앞에서 말한 바처럼 사람의 흔적이 깃들여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해도 좋다. 그 모습은 생활 습속과 관계가 있다. 그 습속은 일상의

되풀이이며 동시에 내일에 대한 염원이 어우러진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다시 바꾸어 문화적 양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항구의 문화가 그런 삶의 흔적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바다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선박과 관련이 깊으며 그 문화의 저변에는 바다와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끈질긴 생의 애착이 용해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남해의 친수공간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남해의 민속문화와 닮은 꼴을 하고 있다. 남해의 민속문화와 항구문화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바다의 문화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정신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우리나라 남해의 민속문화를 살펴 보면서 이같은 사상(事象)과 관련된 항구문화 정립의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바다의 문화적 의미

바다는 그 인자가 물이다. 사람의 무의식적인 상상의 정신공간속에서 물로써 이루어진 바다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일은 물에 대한 인간의 무의식적 심상과 관계가 있다.

바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원형적 심상은 여성성이다. 그래서 바다는 생명의 원천으로 파악되며 생산의 모태로 이해된다.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원수(源水)관념은 바다를 신화의 현장이 되게 한다. 그것은 공간성의 신화를 말하며, 천지창조와 국가 건설의 초월적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된다. 이는 광막한 바다의 끝에는 수평선이 있고 그 수평선에 마련해 주는 수평의 끝에는 피안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의해서다.

수평축의 끝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피안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다. 그 신들의 세계에서는 탄생의 신화가 물을 건너온다. 이것은 출산과

관련된 숨길 수 없는 여성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신라 탈해왕, 가락국 허황후는 바다 저 너머에서 와서 국가 탄생의 이미지와 접합된다. 신라 헌강왕 때 울산 개운포에서 상륙한 처용은 괴이한 인물이지만 바다의 정령이다. 그리고 그는 화해와 신뢰의 화신 이었고 바다 저쪽에서 온 능력자였다.

중국의 경우도 이는 우리와 비슷하다. 진시황은 바다 가운데 있다는 섬 삼신산에서 불로초를 찾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생을 의미한다. 영생을 찾는다는 것은 환생 이미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환생이라면 중국으로 팔려가던 심청의 환생,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남편을 따라 강원도 앞바다에 빠졌던 수로부인의 환생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중국인이 생각하는 바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에 대한 유사한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설화가 아닐 수 없다.

생명은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원망(願望)과 탄생에 대한 물의 정화력(淨化力)이 서로 합쳐서 낳은 관념 때문에 바다는 생명 탄생을 위한 원천으로 관념 지어졌던 것이다. 그 정화사상(淨化思想)은 물로써 원죄를 씻을 수 있다는 관념을 낳게 되었으며 종교의식에서 볼 수 있는 세례나 침례의식(儀式)은 이같은 심상이 종교적 문화적 양상으로 구체화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시인 엘리엇(T.S. Eliot)의 유명한 시 「황무지(Wasteland)」는 물이 없는 황무한 땅은 죽음의 땅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 죽음의 땅이 물을 얻음으로써 재생을 하게 된다고 읊고 있다. 이때의 물은 다시 남자의 정액과 연관시켜 생명의 원천, 또는 죽음의 땅에서 재생에 필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 물은 피와 같은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현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며 문예비평가인 바슐라르(G. Bachelard)는 물은 부드러움과 난폭함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이중적 해석 속에는 생명 탄생의 신비가 강약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무의식에

지배적 요소로 깊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회람 신화의 대부분이 바다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일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다.

바다는 양의 동과 서를 막론하고, 그리고 고대와 현대를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정신을 비중 높게 지배했다. 문화란 정신적 소산물이 삶과 어우러져 구체적 흔적으로 남게 되거나 남을 수 있게 될 것들의 총체라면 바다가 우리의 정신에 미친 영향의 절대성 때문에 그 의미는 심대하다. 그렇기에 그것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다른 어느 것보다 깊고 넓은 우리들의 정신적 토대이자 문화적 배양토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3. 바다와 관련된 남해의 민속

무엇을 두고 남해의 민속이라고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중심으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해의 민속을 민속의 일반적 개념에 의존하되 지역성과 해석성을 고려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글쓴이가 지난 20년간에 걸쳐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남해 낙도를 돌며 조사한 바 있는 마을 제사, 무속, 점복, 주술, 산속, 통과 의례, 세시풍속, 민요(주로 고기잡이 노래), 전설을 포함한 민간설화, 속담, 어로와 선박에 관한 각종 민간신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서도 항구문화를 이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사례를 주로 인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선박의 안전을 비는 민속

20년전 쯤에는 부산의 남항 보수천 하구에 위치한 방파제 주변에서 「항구제」를 지냈다.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음력 8월 추석이 가까울 무렵에 길일을 택해 치렀다. 해신에게 항해의 무사함을

빌고 만선을 기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제주(祭主)는 원래 민간인이었던 것이 뒤에 수산업협동조합 책임자로 바뀌었으며 행사진행자체는 무당이 담당했었다. 그러던 것이 차츰 변질돼 최근에는 축제행사에 흡수되고 말았다.

추석 전에 이같은 행사를 치렀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무렵에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바다에서 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다. 신의 조화에 대항할 길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 신의 용서를 빌었고 사고가 없도록 절대적 힘을 가진 신에게 비는 이 행사는 일종의 기원행사였으며 신에게 인간이 바치는 제사였던 것이다.

물자의 수송이 본격적으로 해운에 의존하기 이전 어촌으로서의 부산 남항이 감당해야 했던 안과태평(安過太平) 의식은 이같은 형태로 전승되었다. 바다가 잔잔해서 사고가 없도록 비는 이 일은 결코 어선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목적의 배였더라도 배에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거행되는 서낭제나 남해의 배서낭제, 또는 전국 각 해안지대에서 거행되는 선왕제는 모두 바다와 관련된 어떤 수호신에게 안전을 비는 행사였다. 그 대상은 바다를 다스리고 선박의 안전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다 민속의 한 유형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 ② 풍요와 장수를 비는 민속

선달 그믐 자정과 정월 초하루 아침 사이에 어촌에서는 용왕 먹이기를 한다. 이는 시월에도 거행되는 곳이 많다. 풍요를 빌고 건강과 장수를 비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물론 재액을 막는 일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다 풍요를 통한 사업의 번영 기원도 결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기원행사의 내용이다. 바닷가에서 음식을 차려 용왕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바다에 던져 용왕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가 이 의식의 절차다.

이같은 헌식 행사는 어촌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바다와 접한

곳, 배가 달는 곳이라면 이는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다. 고시래 또는 헌식이라는 이름의 음식바다에 던지기는 용이 변화무쌍한 신통력을 부리고, 자기 변신이 자유로우며 천지를 압도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어 용에게 이와같은 심술을 부리지 말고 재난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기원행사다. 재앙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 행사 역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철이나 일년이 시작되는 꼭두새해에 진행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를 의식한 행사 뿐 아니라 해조류의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김을 생산하는 전라도 해안 지역에서는 제삿상을 들고 바닷가에 나와서 해신에게 빌고 난 뒤 음식을 바다에 던지며 갯병이 없게 해 달라고 축문을 읽기도 하고 기원 내용을 읊조리기도 했다. 김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 때 “바다에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소”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런 행사는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제주도의 「용왕맞이굿」이 유명하다. 이 굿은 5방(동서남북과 중앙)의 용왕 외에도 4만 4천이나 되는 용신에게 익사의 사고를 막아주고 익사자의 넋을 구제하도록 기원한다. 안전과 함께 사자 진혼의 의미가 갖는 행사이며, 전복 따기 소라따기와 같은 풍요 기원행사가 혼합된 것이었다. 이 행사의 특징은 수많은 용신을 달래서 바다 전역에서 재앙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과 조개류 채취에 훼방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깃들어 있음을 들 수 있다. 4만 4천이나 되는 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이 바다와 얼마나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기도 한다.

용왕과 용신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같은 용왕일지라도 그 권능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왕은 바다의 오방에서 중심적 존재로 권능을 발휘하는 반면에 용신은 귀신적 존재로 용왕에 비하여 권능면에서 한 급 떨어지는 존재로 보았다.

ㄴ)의 경우 선영은 배에 있으면서 배를 보호해 주는 영(靈)이라고 믿는데서 시작된 속담이다. 이 선영은 재앙이 생길 때 미리 구슬픈 소리를 내어 배를 보호해주는 신통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과학적으로는 기상 이변이 있을 때 이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이 내는 소리로 파악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역시 안전에 대비하라는 바다나 배와 관련된 일종의 예고가 되고 있다.

ㄷ)의 경우 해포리는 해파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 해파리는 폭풍우가 오기 전 바닷가로 몰려오는 경우가 많다. 폭풍우가 오기 10~15시간 쯤 전에 수중으로 전해 오는 초음파를 감지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바닷가로 몰려오는 해파리를 보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가 깃든 속담이다.

ㄹ)의 경우도 유사하다. 먼 배가 가깝게 보이는 이유는 저기압 때문이다. 저기압이 오면 바람이 약해지고 공기 중 먼지도 적어진다. 이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도 가깝게 보이며 이는 저기압이 온다는 신호다. 저기압으로 바다가 험해지는데 어장일을 그대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같은 속담이 생긴 것이다.

이 속담들은 모두가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만 생활 체험에서 얻은 사실들이다. 이를 통해 바닷가 사람들이나 배를 타는 사람들을 바다의 현상을 통해서 바다는 재앙을 경고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물빛의 변화라든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던 태풍 전 배에서 쥐가 도망친다는 이야기들도 모두 바다는 우리에게 위협을 경고해 준다는 예가 되고 있다.

배에는 미물들이 살고 있다. 이 미물들은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이변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태풍이 오기 전에 바퀴벌레까지 상선의 화물칸 같은 곳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것도 이같은 예이다.



## ⑤ 희생을 면할 수 있는 바다

우리나라 남해 낙도에서는 어떤 유형의 선박이든 건조해서 처음 바다에 띄울 때 고사를 지낸다. 이 때 닭의 피를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돼지머리를 바다에 던지기도 한다. 이같은 희생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피흘림이나 죽음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관련된 인간의 안전 기원행사다.

경상남도 남해 지방과 전라남도 여수시 개도에서는 배를 진수할 때 짚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바다 중간에 빠뜨리는 의식이 있다. 인형을 빠뜨리고 술을 붓기도 하며 음식을 던져 넣기도 한다. 이는 익사 사고를 예방하는 의식이다. 일단 사람의 형상을 바다가 받았으니 그것으로써 실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신하라는 뜻이다. 남해 미조에서는 진수 때 실제 사람을 바다에 빠뜨렸다가 즉시 건져 올리는 의식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의식은 가짜 희생을 통해 진짜 희생을 줄이자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치는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물귀신들은 사람의 간절한 기원을 가짜로서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있게 된 것이다.

바다는 사납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른다. 그 불가사의의 바다와 마주하면서 인간은 각종 사고를 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그것이 가령 미신일 지라도 그런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 받고자 한다. 그런 욕구가 바다의 민속을 낳은 것이며 첨단 과학의 시대인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같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4. 대결에서 화해지향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을 위협한다. 사나운 바다는 순식간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구상에서 생을

누리고 있는 한 바다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이동하고 생산하고 생명을 누러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대결하면서 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다다. 바다를 시인이 노래나 하는 낭만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바다 건너 있는 또 하나의 육지, 그것은 바다를 통해서 획득한 인간의 신대륙이었다. 바다를 통해서 얻게되는 각종 자원, 그것은 인간이 이 지구를 삶의 터전이 되게 하고 생명의 젖줄이 되게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바다는 정복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상이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를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다는 거의 신비의 영역에 가까운 그 자체를 말없고 평화롭게 인간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 대가는 언제나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시간을 두고 인간의 인식 속에 자리잡은 바다의 심상은 위압적이었다.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는 그 광포성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광포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간은 바다와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다라는 공간을 두고 전개되는 각종 민간신앙의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다. 미신이든, 과학이든 그 내용의 진위는 별개의 문제다. 화해를 통해서 부당한 희생에서 비껴나 슬기롭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가 인간과 신과의 사이에 이 같은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식은 우리의 생활 관습 속에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역사와 함께 문화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이것은 현상이며 이를 부정해야할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화해롭게 살아가야 하듯, 사람과 자연도 화해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 존재의 사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바다를 다스리는 각종 신과도 화해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안을 얻고 생산에 용기를 갖게 되며 작업에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바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들 특유의 항구 문화가 자리잡게 된다.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정신세계에 뿌리내려 사고와 행동을 근거 있게 지배한다. 그 지배소(支配素)를 제거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승적 민속문화를 계승시키거나 정착시켜 하나의 유형화된 문화양식으로 자리잡게 할 이유가 있게 된다. 항구문화 속에서 민속문화를 수용시켜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